

A. Smith

2025.05.02.

4) 가치론 (The Labour Theory of Value)

- 스미스의 가치론의 출발점은 모든 사회에서 생산과정은 인간들이 땀을 흘리는 일련의 과정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인식이었음.
- 스미스는 상품을 필수품, 편의용품, 사치품으로 나누고 이들이 모두 사용가치(use value)와 교환가치(exchange value)를 갖는다고 규정함. 사용가치는 물체의 쓸모를 의미하며, 교환가치는 가격을 의미함. 스미스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수량적 불일치를 발견하고 이를 가치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음.
- '다이아몬드와 물의 역설, paradox of diamonds and water'
 - 사치품인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시장에서 비싸게 팔린다.
 - 필수품인 물은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시장에서 싸게 팔린다.
 - 즉 전자는 사용가치는 낮는데 교환가치가 높고,
 - 후자는 사용가치는 높는데 교환가치가 낮다.
- 스미스의 가치론에서 첫 번째 중요한 개념
 - 상품의 실질가치와 명목가치를 구별
 - 교환경제에서는 물물교환보다는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며, 그 결과 상품들의 가격은 화폐로 측정된다(명목가격).
 - 상품의 실질가격은 '그 상품을 얻기 위한 땀과 노고', 이것은 노동의 양이지 화폐의 양이 아님.
 - 금과 은의 가치변동은 명목가격과 실질가격 사이의 차이를 야기하며, 문제는 실질가격임.
- 스미스의 가치론에서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은
 - 상품가격이 세 구성부분으로 분할되는 것임.

■ 즉, 노동과 자본, 토지의 대가인 임금과 이윤, 지대

- 가치론의 대상은 자연가격

- 시장가격과 자연가격

→ 자연가격 (the natural price) : 시장가격 변동의 중심(center of gravity), 노동, 자본, 토지가 모두 각각의 자연가격을 받는 수준의 가격으로 정의됨.

→ 시장가격 (the market price) : 공급량과 유효수요(effectual demand)에 의해 변동. 상품이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

: 스미스는 시장가격이 가격의 수준이 다양하게 변할 때마다 판매자가 상품을 팔고자 하는 양과 구매자가 상품을 사고자 하는 양의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고 생각함. 다시 말하자면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

: 만약 수요가 공급보다 크고 시장가격이 자연가격보다 높다면 이 상품을 판매해서 얻는 이윤은 자연 이윤율을 초과할 것임. 이때, 이윤이 더 높은 데를 항상 찾으려 다니는 다른 자본가들이 이 산업에 몰려옴. 이러한 새로운 자본가들이 그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함에 따라서 그 상품의 공급은 늘어나며 이에 따라 시장가격은 내려감. 이러한 과정은 시장가격이 자연가격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한 계속될 것. 하지만 시장가격이 자연가격의 수준으로 내려가면 이 산업에서 얻는 이윤 또는 자연 이윤율과 동일하게 되며 그 결과 다른 자본가들이 몰려와 이 상품의 공급을 확대하려는 동기유발 요인도 사라지게 됨.

: 만약 수요가 공급보다 적고 시장가격이 자연가격보다 낮다면, 이 상품의 생산과 판매에서 얻는 이윤은 자연이윤율에 미치지 못할 것임. 이러한 낮은 이윤율은 자본가들 일부가 산업을 떠나 더 이윤율이 높은 산업에 자본을 투자하게 할 것. 이로 인해 공급이 줄어들어 이 상품의 시장가격도 올라갈 것. 이 경우에는 시장가격이 자연가격 수준으로 오를 때까지 이 과정은 계속될 것임.

→ 자연가격은 일종의 균형가격으로 매일의 시장가격의 등락은 이 균형가격을 중심으로 삼아 오르내리며 그렇게 시장가격을 자연가격에 수렴하게끔 밀어대는 것이 바로 수요와 공급의 힘이라는 것임. 자연가격은 생산비용에 의해

결정되지만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 확립된 균형가격이기도 함.

자연가격은 모든 상품의 가격이 그것을 향해 끌려 들어가는 중심가격(central price)이다(*The natural price thus becomes 'the central price, to which the prices of all commodities are continually gravitating.'*).

→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쟁이 시장을 자연가격으로 수렴하게 함.

- 노동가치론

- ✓ **투하노동가치론**(labor-embodied theory of value)

- : 모든 상품의 가치란 그 상품을 획득하는 데 투입한 노동의 가치를 의미
- : 초기인류사회에서만 맞는 이론
- : 사슴 1마리 잡는데 1일 걸리고, 해리 1마리 잡는데 2일이 걸리면, 몇 대 몇으로 교환되어야 하는가?
- : 2일 동안 사슴은 2마리, 해리는 1마리 잡기 때문에 2:1의 비율로 교환이 가능

: "이러한 상태에서는 노동이 생산한 것 전부가 노동자의 것이 된다. 그리고 어떤 상품이든 그것을 획득하거나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노동의 양이야말로 그 상품이 보통 구매, 지배, 교환할 수 있는 다른 노동의 양을 규정하는 유일한 조건이다." (국부론 中)

: **실제 얼마의 노동이 투하되었는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

- ✓ **지배노동가치론**(labor-commanded theory of value)

- : 상품 교환을 통해 지배하는 노동의 크기
- : 즉 상품의 가치는 투하된 노동량이 아니라 그 상품이 지배하거나 동원할 수 있는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 : 만약 노동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용가치가 존재하고 노동자 1인이 하루 동안에 소비하는 필수품의 수량이 정해져 있다고 하자. 지배노동은 필수품인 상품을 가지고 부릴 수 있는 노동자의 숫자나 노동시간을 의미함. 그리고 이런 노동시간이 해당 상품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임.
- : 자본축적과 토지소유가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지배노동에 의해 가치가 결정됨.

: 즉 자본주의 경제에서 성립하는 개념

: 가령 쌀 1가마로 노동자 5명을 15일 동안 먹일 수 있고, 노동자가 하루 8시간씩 일한다면, 쌀 1가마의 지배노동 가치는 5명 혹은 $5(\text{명}) \times 15(\text{일}) \times 8(\text{시간}) = 600(\text{시간})$ 임. 또는 시장에서 쌀 1가마에 20만원이고, 시간당 임금이 330원이면 쌀 1가마의 궁극적인 가치는 지배노동량이 약 600시간임.

등가 교환

상품 A	<=====>	상품 B	: 교환사회
노동 a		노동 b	: 분업

→ 상품교환과 분업이 동시에 달성 : Great Society, 상업사회

• **생산비용가치론(cost of production, 생산비설) - Adding-up Theory, 구성가치론**

: 두 가지 가치론을 거부하고 노동에 대한 임금, 자본에 대한 이윤, 토지에 대한 지대가 진실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파악함. 따라서 임금, 이윤, 지대를 모두 진실 가격의 구성 요인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음.

→ 스미스의 생산비설은 임금, 이윤, 지대가 가치를 결정하고 이 가치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논리 구조를 가짐으로써 생산요소의 가격으로 생산물의 가격을 설명하는 순환론에 빠짐. 이 점은 이후 리카도에 의해 비판받음. 스미스의 가격 및 가치론은 모호하고 확실한 결론이 없다는 비판을 받지만, 이후 수정 발전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학사적 의의는 큼.

5) 분배론

① 임금론

• 임금의 결정

✓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계약 혹은 bargain : 임금협상은 노동자에게 불리함.

✓ 임금생계비설(임금철칙설)

: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임금수준 이하로 상당기간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함.

→ 스미스를 포함한 고전파 이론체계 전체의 핵심을 이론 이론.

→ 고전파는 임금이 언제나 생계비 수준에 머무른다고 생각한 것은 아님. 장기적으로 임금이 생계비 수준에 수렴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수준의 위아래로 요동칠 수 있음. 고전파는 장기적 임금을 자연임금(natural wages)으로, 단기적 임금을 시장임금(market wages)로 규정함.

→ 스미스의 임금이론은 한 나라에서 특정한 시기에 임금의 실제 수준을 결정하는 힘보다 임금수준의 동역학, 즉 임금을 높이거나 낮추는 경향을 가진 힘을 더 직접적으로 다룸.

✓ 임금기금(wage fund)설 : 자본축적은 임금기금의 크기를 결정하고, 고용되는 노동자의 숫자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1인당 임금이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

✓ 인구와 임금 : 임금수준이 높은 사회가 좋은 사회임.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높은 임금수준과 노동자 계층의 삶은 인구증가를 초래함. 그러면 노동공급 증대와 임금하락의 압력이 생김. 장기적으로는 임금과 인구는 상호 조정됨.

② 이윤론

• 스미스는 이윤이 임금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함. 이는 스미스의 고유한 주장!

• 임금공제(wage deduction)설 : 이윤은 생산비용에서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 이윤율은 경제학적으로 중요한 척도임.

• "경쟁은 이윤율을 균등화하는 경향이 있다."

: 스미스는 자본가들 사이에서의 경쟁이 상이한 산업에서의 이윤율을 균등화하는 경향을 상당히 강조함.

※ 스미스는 이윤율이 장소·시간마다 다양하므로 하나의 정상 또는 적정 이윤율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스미스는 전체 경제의 이윤율은 자본축적 과정에서 **모든 부문에 걸쳐 하락한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음.**

- **이윤율 저하의 법칙** : 이윤의 양은 자본의 크기에 따라 증대함. 즉, 이윤은 자본투자의 대가임. 고전파는 이윤율의 장기적인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였고, 그 결과 자본주의가 정체상태(정상상태, stationary state)¹⁾에 접어들게 되리라고 예측하였음.

- **근검절약설** : 자본은 근검절약(parsimony)에 의한 증가

③ 지대

- 스미스는 지대를 독점가격으로 간주함. 소유자는 생산에 따른 이윤의 일부를 지대의 형태로 **흡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됨.** 이 때 스미스에게 있어서 **지대의 토대는 독점.**
- 스미스는 지대는 상품의 자연가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연"수준이 없다고 보는데, 그 까닭은 지대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대 자체가 가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임.

1) 이윤율이 0으로 떨어지고 자본 축적이 중단되는 상태